

34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사들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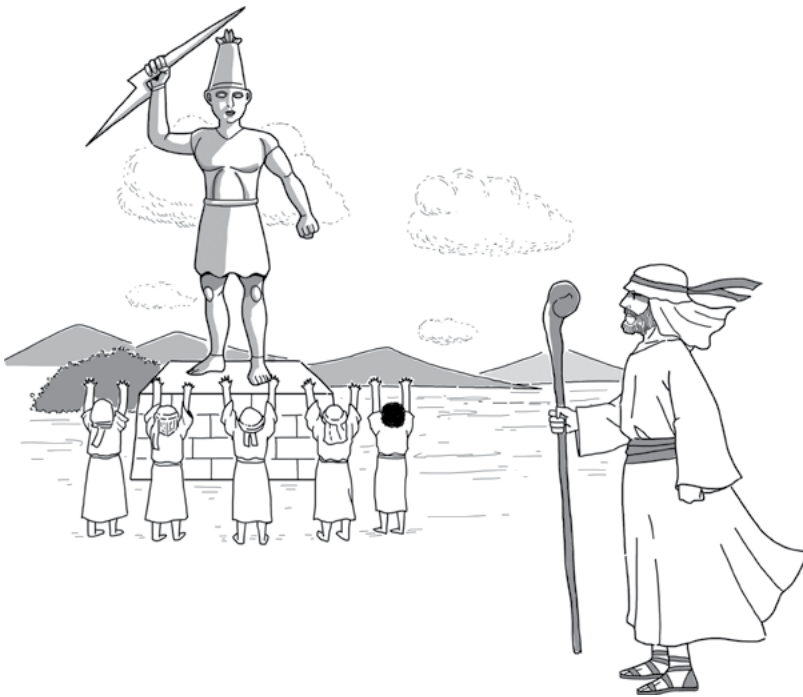
삿 2:6~23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179장 (말씀하시면)

오늘 배울



1. 인간의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심을 압니다.
2.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를 세우실 때에는 그 와 함께 하셨고 그 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그 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파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삿 2:18~19)



을 이해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전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불순종과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로 인한 승리와 평화의 시간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불순종과 징계, 간구와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한결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첫 사사 웃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원손잡이 용사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으며,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삼백 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 같았던 미디안의 군대를 전멸시켰으며 삼손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는 바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s in our weaknesses. For we do not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Ro 8:26)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사사'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삿 2:16,18)?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삿 2:6~10).
- 2 사사시대를 '사사'의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두 명의 사사를 정해 그들의 삶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옷니엘 → 에훗 → 삼갈 → 드보라 → () → 돌라 → 야일 → () → 입산 →
 엘론 → 압돈 → () → 사무엘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롬 8: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2

롬 8: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롬 8: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롬 8:8

↓

롬 8:12

↓

롬 8:13

↓

롬 8:14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 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열다섯 살 아래였지만 그럼에도 굉장하게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유언에 따라서 부부 시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란히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루터의 어린 후배이자 친구였던 멜란히톤은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 할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란히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 하였고 결국 마틴 루터도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 (롬 8:31)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질문 있어요~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의 합당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받으면 십일조가 문제가겠습니까?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눅 16:10~11)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의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붙잡혀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십일조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철저히 한다면 하나님의 일, 특히 전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십일조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